

〈정평구전〉의 유형적 특성과 의미

김명선(우석대)

〈목 차〉

1. 서론
2. 〈정평구전〉의 연행적 성격
3. 〈정평구전〉의 구조와 의미
4. 〈정평구전〉의 미학적 특질
5.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이 지은 『유재집(裕齋集)』 권지육(卷之六) 소개 〈정평구전〉을 텍스트로 삼아 유형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행 현장의 실제와 전과 야담과의 상호 교섭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인물전승의 구조적 의미와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였다.

정평구 인물전승은 무엇보다 조선 후기 인물전의 전형과 형식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사건이 중심 되는 내용적 전개 위에 사실과 허구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문헌에 정착된 텍스트이다. 그러기에 전의 구성양식에 있어 행적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야담, 설화, 사실, 역사가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평구 인물전승은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적 변이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개방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전의 특성상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본고의 설화적 모티프를 매개로 한 정평구 인물전승은 역사적 시차로 구비전승 되는 과정에서 내용적 변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춘 작품이다. 그리고 편찬자의 서술 태도와 시각이

작품 논란부 전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편찬자는 가담항어의 야담을 침삭과 번개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조선후기 근본적인 인재등용 정책의 문제점이나 적재적소의 인재등용의 모순점을 직,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정평구 인물전승은 문예미학의 특질인 재치, 기지와 풍자, 해학이 사건 전개에 극적 반전으로 작용하여 흥미를 더하여 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 민중의식의 발로가 구현된 적층문화적 특성을 실재적 인물전승에 덧붙여서 민중들의 역동성과 생기발랄함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평구 인물전은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구비전승되어 오다 유재 송기면의 편찬의도에 따라 재구성된 전 문학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주제어 : 정평구전, 야담, 각편, 서술시각

1. 서론

본고는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¹⁾이 지은 『유재집(裕齋集)』 권지육(卷之六) 소재 <정평구전>²⁾을 텍스트로 하였다. 『유재집(裕齋集)』소재 단 한 편뿐인 <정평구전>은 아직 학계의 논의가 없었다. 특히 이 작품의 유형적 특성으로 조선 후기 인물전의 전기적 요소보다 야담적 요소가 적지 않게 침삭, 번개, 변이되는 과정이 일관된 주제 하에 다채로운 삽화가 복합적으로 전 구조의 본문에 복합삽화³⁾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하며, 서술자의 서술시각에 의해 입전대상의 행적과 관련하여 역사와 허구가 병존하는 번개양상이 전과 야담, 설화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삽화의 해학과 골계, 풍자의 미학적 특질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텍스트에 담긴 주

1) 자(字는) 군장(君章), 호는 유재(裕齋), 여산인(礪山人)임. (김순동 편, 『한국고사 대전』, 회상사, 1969. p. 675.)

2) 박완식 역, 송기면 저, 『유재집(裕齋集)』, 이회문화사, 2000, pp. 663~667.

3) 정명기, 『한국 야담문학연구』, 보고사, 1996, p. 18.

제적 의미는 물론 사회적 현상에 비친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전, 야담, 역사, 설화의 친연성(親緣性)에서 비롯된 <정평구전>에 나타난 인정기술(人定記述)과 품평(品評)이나 논찬(論纂)이나 평결(評決)에서 밝히고 있는 ‘영리함’, ‘재치’, ‘기변(機變)’, ‘골계(滑稽)’에 대한 문예적 특질, 당대적 이념에 입각한 주제적 의미는 물론이러니와 궁구해야 할 현대적 의의가 무엇인지 탐색하려 한다.

서술자의 서술시각과 태도는 정평구⁴⁾ 전을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서술자의 인정기술의 의도도 인재의 등용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는 결미의 논찬부를 눈여겨 볼 때, 허구가 아닌 사실로 기정사실화하고 입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인물전의 양식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기술의 실재를 보면 어디까지나 설화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인정기술을 할 때 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당대가 아닌 역사적 시차를 두고 입전대상으로 삼아 기술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허구와 사실의 혼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본고의 인물전승은 민중들의 시대적 변화와 그 요구에 따라 많은 변이(變異)와 첨삭이 이뤄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작품 유형에 편입되어 첨삭(添削)과 변개(變改)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작품유형으로 발전하여 서사적 분량과 주제 내용이 뒤섞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문헌 설화 작품과 구비설화에 있어서 한 인물전승(傳承)에 대한 각편(各篇;version)⁵⁾의 존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야기와 서로 관련된 연행현장(演行現場)과 향유자(享有者)에 따라 그 의미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이 어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연행되어지다가 한 기술자에 의해 문헌(文獻)으로 정착되는 순간 변개와 첨삭이 정지된 상태로 독자를 기다리게 된다. 일련의 이런 과정이 구비전승 설화가 문헌으로 정착되면서 기존의 문헌 소재 인물전 양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본고의 정평구 인물전도 보통 인물전의 기술양식(記述樣式)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입전(立傳) 대상과 인정기술(人定記述), 평결(評決)에

4) 공은 동래정씨 대호군파 명금파로 시조 지원의 19세손 계주의 아들로 자는 유연, 호는 평구다. (김병학, 『온고이지신의 고향 김계』, 학예사, 2007, p. 111.)

5) 정명기, 『야담문학 연구 현단계』, 보고서, 2001.

이르는 과정이 아담의 열린 장르로서 여느 문헌 아담(野談)의 인물전과 대부분 다를 게 없다. 근본적으로 전(傳)양식의 변이나 변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열린 장르로서 자유롭게 변개와 침식⁶⁾이 이루어져 구한말 시대상을 반영하여 연행되어진 풍정 세태와 당대적 세계관이 일목요연하게 각편화되어 있어 그의 인물됨이 초점화(焦點化)되고 향유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교훈과 흥미를 본령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편찬자(서술자)의 태도와 서술시각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그 밖에 주제의식(主題意識)과 특질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이면에 실체는 간단명료하고 단순한 문제 이상이어서 복잡한 전개양상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그저 복잡한 사회상과 시대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하나의 복잡한 이야기의 세계 속에 일반 백성들의 다양한 의식이 적층(積層)하고 교직(交織)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각편들의 행간(行間)을 더듬다 보면 민중의식(民衆意識)의 실체가 한 일화(逸話)에 고스란히 투영된 모습을 감지하면서 민중들의 끈질긴 삶의 의식과 그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정평구 설화에는 계층적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거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이야기 열개의 중형으로 교직되어 김제지방을 중심으로 연행되어지다가 평민지식인 계층인 한미한 선비에 의해 문헌으로 정착되어진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진솔하고 거짓이 없는, 순박한 사람들의 실체와 맞닿아 있어 ‘거짓말이 갖는 미학’이 재기발랄하면서 풍자적이고 세태풍정적(世態風情的)이면서 ‘논두렁(道聽塗說)’이나 ‘저자거리(街談巷語)’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관념적 질서와 그 형식에서 오는 경직된 기존의 인습과 규범이 타의든 자승자박이든 민중들의 삶을 옳아매었다면, 이 에피소드는 형식과 명분의 느슨한 공간을 휘젓고 다니다가 틈만 보이면 한번 건드려 보기도 하고 시비도 걸고 탄축을 부려서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적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강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인물전은 사건 중심과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여러 개의

6) 정명기, 앞의 책, p. 14.

에피소드가 한 인물에 의해 서사화된 작품이다. 따라서 주제적 표출을 위해 얼마든지 개입과 변개와 삽입이 가능한 구성원리(構成原理)를 지닌다. 정평구 인물전승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 편의 에피소드가 정평구의 인물전에 삽입되어 전승되어지고 있는 일부 내용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추측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한 인물에 가탁하여 실제인양 전승되는 측면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도 <정평구전>에 대한 야담, 설화, 문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믿는다. 인물전승이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첨삭과 변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야담, 설화적 현장의 실제이므로 정평구라는 인물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이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실존 인물에 관심과 비중을 더 두는 나름대로 근거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허구⁷⁾임을 감안한다면, 정평구 인물전승 작품도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서 발생과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정평구 인물전승은 김제 지방을 중심으로 얼마 간 전승되고 유행했던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 이야기 전승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다만 현장 채록을 중심으로 인물전승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보다 값진 일이겠으나, 본고는 인물전승이 문헌에 정착된 내용을 가지고 고찰하는 계기를 논지로 삼는다.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찰하는 인물전승의 실제이기도 해서 문집에 실려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가담항어(街談巷語), 도청도설(道廳塗說)의 단형서사체의 총칭인 야담이라고 한다면 정평구 인물전의 구성적 틀이 ‘도입부-전개부-논찬부’⁸⁾, ‘서두부-행적부-평결부’⁹⁾로 외형적 구성을 띠고 있는 정평구 인물전이다. 그런데 행적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얼마든지 설화, 야담 세계에서 소화담이나 기지담이나 트릭스터담 유형으로 구비전승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평구라는 인물이 기발한 재치나 기재, 위트와 순발력으로 에피소드화된 측면이 없지 않더라도 행적부는 야담이나 설화적 성격이 짙은 서사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김제지역에서 견문한 것도 설화적 성격으로서의 정평구 인물전이 연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7)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p. 14.

8)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p. 208.

9) 이동근, 앞의 책, p. 252.

2. <정평구전>의 연행적 성격

정평구는 실재한 인물로서 아직도 김제 지방에 그의 분묘가 있었다는 점과 역사적 실존 인물로 전기적 요소를 띠고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에 얽힌 이야기가 실재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각색되고 윤색되어 인근 지방에 설화적 화제(話題)를 불러일으켰다 해도 그것이 역사적 사건의 실체는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야기가 갖는 문학적 연행성과 확대 재생산, 재창작, 재구되어지는 속성을 반영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정평구전>은 이미 인물전승의 의미보다는 이미 민담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에피소드의 복합적 결합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한 인물의 행위와 성격, 서사양상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전승된 민담화된 삽화(插話)라는 점이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실제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이 사회 유통적 의미를 가질 만하다 싶으면 그에 얽힌 이야기나 에피소드들이 무제한적으로 덧붙여져 연행될 수 있는 기회를 획득되기 마련인 점이 이야기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입담이 좋은 사람에 의해 재구성되어지고 각색되어 동일한 주제 아래 놓여서 한 인물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기능도 없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정평구에 대한 인근의 이해는 단순히 거짓말쟁이이며, 재치가 번뜩이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전승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하고 평면적인 현상은 얼마든지 민간에서 향유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와중에 내재된 의미 지향을 실현하려는 실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하게 만든다. 한 인물을 입전화한 에피소드는 암암리에 민중들의 의식 속에 침윤(浸潤)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재집(裕齋集)』에 수록된 <정평구전>은 전기, 민담, 야담, 설화가 혼재된 장르류(類)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후대에까지 전승되면서 삽입되어 들어갔고 개화기 이후에 간행된 『유재집(裕齋集)』이라면 이미 김제지방을 중심으로 조선 선조 때 인물이었던 정평구와 근대 이후까지의 시차적 거리를 감안하면 삽입과 변개, 첨삭이 자유자재로 개방된 문학으로써 구비전승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정평구 인물전승 각편(version)이 한 개 이상의 삽화에서 여러 개의 삽화까지 확장될 수도 있으며

그와 반대로 한 편의 각편(version)을 떼어서 인물전승에 끼워 넣는다 하더라도 골계와 해학의 내용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기도 하다. 정평구라는 인물전의 구성은 인물전의 양식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입전 인물의 인정 기술-인물 행적 삽화-평결]의 구성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여느 인물전과 짜임에 있어 별반 다를 바 없으나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정평구의 행적이 거의 사건 중심의 삽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되는 바이다. 이는 인물 행적의 삽화가 자유자재로 변개하거나 침삭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정평구 인물전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기술된 전 양식¹⁰⁾을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물전 기술 과정에서 서술자의 집필 의도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인물전기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에 담긴 서사 내용으로 보아서는 실제보다는 허구에 기반을 둔 이야기의 속성을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일 삽화로도 복합삽화로도 얼마든지 개방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단일삽화이든 복합삽화이든 설화의 일반적인 전승, 정착 과정이라고 말한 정명기 교수¹¹⁾의 타당한 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복합삽화로 이루어진 X라는 이야기 X를 이루고 있는 X1, X2, X3 X4...Xn이 야담 속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정평구 삽화들도 그런 의미 체계를 지니고 있는 야담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라 설화의 분리와 결합의 작용, 편자의 개인적 의도 작용¹²⁾하겠다.

전, 가전, 야담은 내용과 담론 형식에서 유사점 못지 않게 각각의 차이점을 지닌다. 특정 인물의 현상에 서사적 목적을 두거나 독자에 대한 권계(勸戒)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전(傳)을 취하고 작자의 상상력을 과시하고 해독력을 갖춘 독자를 감안할 때는 가전(假傳) 양식을 취하고 사실과 허구를 확실하지 못할 채 서사적 흥미를 앞세울 때는 야담(野談)을 택하듯 찬술 의도에 따라 취하는 장르종은 달라질 것이다.¹³⁾

10) 인물전이란 인간의 역사적 삶을 일정한 가치대도하에 집약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물전은 '인간의 역사적 삶'을 문제삼기에, 역사와 인간의 관련, 역사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다른 어느 장르보다 치열하고도 중심적인 문제로 설정된다.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p. 99.)

11) 정명기, 위의 책, p. 17.

12) 정명기, 위의 책, p. 16.

13) 김승호, 『어문연구』 14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pp.176~177.

정평구의 인물전승은 도입부와 논찬부만큼 전의 양식을 전범(典範)으로 삼고 있지만,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은 민담이나 설화의 내용과 같이 사실과 허구의 열개가 모두 공유된 보이고 있으며, 여타의 설화집이나 민가에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는 것이다.¹⁴⁾ 아래는 정평구 삽화를 정리해 본 것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한결같이 인물의 지모와 계략과 기만에 관계되는 이야기로 그 의도가 거짓과 참의 대립적 설정을 통하여 거짓의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 행태와 불신의 부도덕성을 계도하거나 선양하자는 의미보다는 거짓과 기만 속에 감춰진 해학과 골계에 초점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삽화는 인물의 전형성과도 결부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면서 민초들의 소박한 실상 속에 배어있는 여유와 멋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 『정평구 삽화 1-1』 거짓말 잘하는 정평구¹⁵⁾
- 『정평구과 1-2』 거짓말 잘하는 정평구¹⁶⁾
- 『정평구 삽화 2』 양값음 당한 담배 장수
- 『정평구 삽화 3』 밀도살한 점포 주인을 구해 준 정평구
- 『정평구 삽화 4』 거짓말 시험
- 『정평구 삽화 5』 절 했다고 우기기
- 『정평구 삽화 6』 배고픔을 달래려고 바늘 고치기
- 『정평구 삽화 7』 봉사를 속인 정평구
- 『정평구 삽화 8』 여관 주인을 농락한 정평구
- 『정평구 삽화 9』 수탉 장수를 속인 정평구
- 『정평구 삽화 10』 샷갓을 쓴 정평구
- 『정평구 삽화 11』 청군을 기만한 정평구

이와 같은 삽화들 속에는 인물의 전형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주제 아래 일관된 맥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삽화라면 감히 교섭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의 작품들은 얼마

14) 설화문학의 현장 연행에서 종종 들어왔고 김제군지나 향토지에 간혹 보이고 구비 전승의 현장에서도 간혹 들어왔던 설화 내용이지만, 본고는 구비전승된 부분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며 『유계집』에 실려있는 문헌의 인물전만을 주 텍스트로 하고자 한다.

15) 송기면, 박완식 역, 『유계집』, 이화문화사, 2000.

16)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라북도 편 I, 평민사, 1990. pp.98~99.

든지 지략과 기만, 책략에 따라 비단 정평구가 아니더라도 교섭할 수 있는 개방성의 삽화들이라 할 만하다. 대표적인 작품이 『정평구 삽화 10』과 『정평구 삽화 11』인데, 이 삽화는 임진왜란과 관계된 이인설화에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들의 전승적 의미의 확대가 여러 이인들이나 기인들에 덧붙여져 전승되고 있어 정평구라는 인물 이외에 이야기 전승의 다양한 인물군(人物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동일한 화소(話素)에 기반을 둔 연행성(演行性)이 어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간혹 연행되기도 하는데 정평구 인물전승은 여타 지역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하게 전파된 이야기가 아니라,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구비전승(口碑傳承)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헌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문헌 설화의 내용을 추슬러 보면 입전화(立傳化)된 동기가 그의 인물됨을 드러내주는 재치와 해학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곧 능력임을 인정하고 환로에 발탁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풍자와 질책, 질타 따위로 비아냥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말하자면 현재의 용인술(用人術)에 대해 우회적인 태도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연행된 이유가 바로 재치와 해학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기능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승 연행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체로 정평구 관련 전승들은 현실 인식의 토대 위에서 비롯된 삶의 일상성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들이 현실의 질곡과 모순, 불합리한 세계를 질책하거나 비판하는 서사물(敘事物)이라 거기에 연행의 동인이 있다 하겠다. 더군다나 이야기들은 사회적 혼란과 이념적 혼돈이나 갈등에서 야기되는 삶의 불완전함과 결부된 서사물의 연행이라 할 만한 내적 동인을 얻게 마련이다.

3. 〈정평구전〉의 구조와 의미

정평구 인물전승은 당대 민중들이 사회적 통념의 획일성을 거침없이 폭로하고 있다. 한 가지의 관점과 이념을 수용하고 다른 이념을 수용할 수 없는

편견과 경직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모든 윤리 규범과 문화가 정체되어 있을 때, 그 현상에 대한 대항 의식은 그것을 수용하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질서와는 동일하게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특출나고 미묘한 행태로 표출되었을 때 그 의미를 인정받게 된다. 정평구가 천하에 내로라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관계 설정이 이미 고착화된 현실에서 통용되어진 하나의 약속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의 말은 한결 같이 거짓말이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민중들은 그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로서 신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성을 띠며 수용할 태세다. 그렇다면 믿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듣고자 하는 향유자들의 저변 심리는 무엇일까. 이미 향유자들은 이야기 문학으로서 야담을 의미화하려는 의도가 언술 여기저기 강하게 드러나 있다. 게다가 거짓말쟁이 정평구는 한 권역에서 향유자들이 거짓과 진실의 두 개념 사이에 도덕성과 윤리성을 전제로 한 거짓말하기를 요구받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과 관계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띠고 나타내려는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 인물전승 및 야담이 지향하는 담론 체계는 이미 민중적 사고와 대척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기존 질서와 그 경직성에 대한 서사화가 아닐까 생각된다.

정평구 설화의 의미가 당대의 사회적 현상과 인간 관계와 더불어 맥락을 연결지을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구조화는 그에 재치에 관한 것으로 ‘통념/일탈’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거짓말하기의 실체가 전부이리라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통념을 통쾌하게 무너뜨려 버리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신선한 충격이 정평구의 이야기의 장점이자 이야기 향유자들의 기대와 요구이기도 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거짓말하기의 극적 반전으로 점철된 정평구 인물 삽화의 구조성이 ‘통념/일탈’의 연속성이라면 이 토대 위에 향유되어진 이야기 패턴의 극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관한 기존의 통념과 질서에 일탈된 행동(발상의 전환)이 점차 제도권에 편입되어 통념화되는 현상이 일반적인 일이라면 이 이야기의 실체 또한 이런 기반 위에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삽화-1』에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해놓고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거짓말 해봐라’식이다.

동네 사람들이 농담삼아 “네가 해학을 잘 하니 우리에게 한 번 시험삼아 보여달라” 하였다. 그러자 바빠 서둘러 가면서 말하기를, “관에서 창고의 쌀을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주는데 나에게 시켰다. 나누어 주기가 아주 바쁘니 며칠만 기다려라.”하였다.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서 그 시기에 맞추어 하나씩 포대를 짊어지고 창고 있는 곳으로 갔지만 조용하였다. 창고지기에게 물으니, “너희들 꿈꾸고 있느냐? 어디에서 온 놈들인가.” 하였다.

이것이 이야기 현장의 통념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념에 순응하면 이야기는 곧 재미가 없어지고 말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관한 한 용패는 재주를 가진 정평구라 할지라도 기존의 흐름을 바꿀 만한 기발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식의 비아냥거림과 반신반의가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념과 질서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기존의 통념과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야기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언술에는 일상적 대화와 그 질서가 무너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거짓말을 듣고자 하는 대중들의 향유적 욕구는 계속되어질 것임을 시사해 준다. 그것이 정평구 설화의 거짓말 모티프의 생명이자 실체이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¹⁷⁾이 곧 정평구라는 인물이다. 변화무쌍한 상황논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략과 기지, 재모는 그가 단순히 거짓말쟁이에 매몰되지 않고 거짓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해학을 선사할 수 있는 선의의 거짓말이기도 하고 때론 악의의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그것에 직면한 실체를 자기 주도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곧 재치와 기재가 넘치는 정평구임에 틀림없다.

만일 다수의 사람들이 그에게 ‘거짓말을 해’ 라고 해 놓고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그 거짓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을 수령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기민(饑民)한다고 쌀보리를 방출한다’고 해놓고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야기의 실체는 성립되지 못한다. 거짓말이어야 이야기의 진실이 인정받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논리다. 그 뿐이 아니다. 서울에 가서 잠잘 곳이 마땅찮고 여비도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관 주인을 기만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악한 도

17) 유소 저, 이승환 역, 『인물지』, 홍익출판사, 1999, p.121. 此似是而非者也, 亦有似非而是者.(이러한 자들은 모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와 달리 그렇지 않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다.)

시인을 기만할 수 있는 시골뜨기인 정평구의 거짓말이란 것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다. 특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여관 주인의 처지에서 정평구의 행위는 미덥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정평구는 여관 주인을 기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평구다우며 천하 거짓말쟁이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야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의미의 심층이 당대적 삶의 비속성과 세속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흥미하게 한다.

일상적 상황의 반전이야말로 정평구 설화의 핵심 근간이다. 일반 대중들의 기대와 욕구를 반전시키는 정평구의 재치와 해학이 정평구 설화의 버전에 나타나는 성격이자 기능화소이기도 하다. 정평구 설화의 각편(各篇)들이 한결 같이 해학과 재치로 일관된 주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통념/일탈’의 구조는 일상적 통념을 재치나 해학 내지는 골계를 매개로 일탈된 양태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평구 인물 삽화의 핵심 요소는 곧 조동일 교수의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이야기 체제이다. 일상적 통념의 몰입에 따른 일상성이 정평구의 일탈된 의식과 가치에 의해 여지없이 격파된다. 이는 닭을 봉황이라고 우겨대는 그의 모습과 태도에서 일상적인 질서에 편입되어 버린 삶의 실체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알레고리 수법은 이미 정평구의 숨겨진 계산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 알레고리의 궁극점이 곧 일탈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게 한다.

인색한 자에게 봉변을 당하게 하는 담배 장수 『정평구 삽화 2』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갖는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한번은 담배 장수를 만나 자기 담배를 내 보이면서 말하기를, “너무 써서 피울 수 없으니 당신 담배를 한 입만 피워보자.” 하였는데, 그 담배장수는 자기의 담배를 찾아 피우면서도 끝까지 한 입도 주지 않았다. 평구는 다소 언짢은 마음을 가졌지만 다른 일을 빙자해서 담배장수를 따라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논두렁을 지나는 길에 남녀가 뒤섞여 모내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평구는 갑자기 눈으로 들어가 그중 젊은 여자를 농락하고 도망가면서 담배장수를 돌아보며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며 멀리 달아나자, 모내기 하던 사람이 뒤따라 오지 못하고 그 아저씨란 사람을 두들겨 패고 담배를 부수어 땅바닥에 내동댕이치자 담배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 가치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대적 가치의식과 사고를 엿볼 수 있기도 한데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의식이 서서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투영시켜 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도살 금지령을 위반한 점포 주인을 정평구의 계책과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 『정평구 삽화 3』은 ‘소’라는 동물의 중요성이다.

또 한번은 가는 길에 점포 주인이 때마침 몰래 소를 잡았다. 그 당시에는 소의 도살에 대한 금지령이 엄격하였으므로 관리들이 사망으로 나와 수색하였다.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구에게 계책을 알려주라 부탁하자, “이 일은 어렵지 않다. 다만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여달라.” 하였다. 배불리 먹고서 술 찌꺼기를 허리춤에 차고서 그에게 말하기를, “고기를 깊숙이 숨기고 불안한 얼굴빛을 보이지 말라.” 하였다. 길을 가다가 수색하는 관리들이 생각대로 다가오자, 숨졌던 포대를 옷 안으로 싸되 반쯤 내보이면서 먼 길로 피해 달아나자 수색하는 관리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멈추라고 고함을 지르자 마침내 한참동안 줄행랑을 치다가 잡혀 주었다. 그 포대를 열어 보니 술 찌꺼기였다. 관리들이 기가 막히고 성이 나서 말하길, “이 술찌꺼기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도망했느냐?” 하였다.

농경사회에서 소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겠는데 그러한 소를 도축하였으니 소의 밀도살은 곧 노동력의 악화이고 노동력의 악화는, 곧 생산력 증대에 차질을 갖게 만들며 이것이 곧 개인의 부는 물론 국가의 부와 직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의 밀도살은 국가의 금지령의 정당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엔 궁핍한 실상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밀도살의 부당성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정평구의 기만행위의 실체가 그를 위기로부터 구해준 그 부분에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밀도살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사태해결을 원만하기 처리한 것이 아니다. 밀도살 행위가 관리에게 들켜서 중벌을 받게 생겼다. 그야말로 점포 주인이 봉변(逢變)을 어떻게든 아무 일없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 봉변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점포 주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 후과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봉변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은 정평구

의 지략에서 나올 것이고 어떤 반전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즉 봉변을 ‘능변(能變)’으로 전환해서 점포 주인에게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극적 반전을 ‘술 찌꺼기’로 활용하였다. 관리의 시선을 붙잡아 두어 점포 주인의 위기를 간단하게 모면하게 했던 기발한 발상이 돋보인다.

『정평구 삽화 4』는 정평구의 거짓말의 실체의 근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네 사람들이 농담삼아 “내가 해학을 잘 하니 우리에게 한 번 시험삼아 보여달라.” 하였다. 그러자 바빠 서둘러 가면서 말하기를, “관에서 창고의 쌀을 어려운 백성에게 나누어주는데 나에게 시켰다. 나누어 주기가 아주 바쁘니 며칠 만 기다려라.” 하였다.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서 그 시기에 맞추어 하나씩 포대를 짊어지고 창고 있는 곳으로 갔지만 조용하였다. 창고지기에게 물으니, “너희들 꿈꾸고 있느냐? 어디에서 온 놈들인가.” 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존재를 재삼 확인하는 계기이면서 풍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행위에 대한 만인의 기대는 곧 낫설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정평구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면은 기만행위의 소통이 곧 인간 내면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일상적 욕구와 기대에 따른 풍자의 맛을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의식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삶의 존재 방식이자 수단이다. 쌀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일상적 중요성에 이야기의 해프닝이 갖는 의미 전달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해야 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의 명민하고 기발한 기만극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거짓말이 참말처럼 행사되려면 적어도 양자 사이의 신뢰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참말로 속게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참말보다 더 생생하고 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실체들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의 실체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상적인 삶의 한 가운데 여유와 맛을 풍겨주는 우스개의 묘미가 담겨져 있다.

『정평구 삽화 5』는 인간사(人間事) 수인사(守人事)에 따른 해프닝이다.

한번은 권농예가 되어 관아에 들어가 아전에게 절을 하다가 샷갓 끝이 그 고을 아전의 코 끝을 스쳤다. 아전이 성을 내어 말하기를, “절을 할 적에 멀리 떨어져서 하라.” 하였는데, 그 뒤로는 아전을 보고서도 절을 하지 않자, 아전이 말하길, “어찌서 절을 하지 않는가.” 하니, “멀리 떨어져서 절을 하라기에 저 언덕 위에서 절을 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상하의 계제적 질서(階梯的 秩序)에 따른 명분과 허위의식이 작용하는 관계성에 대한 풍자이다. 코끝에서 절하는 아랫사람을 나무라며 멀리 떨어져서 절하라고 하니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절을 했다고 해놓고 농을 친다. 이것이야말로 계제적 질서에 따른 명분과 허위의식을 폭로하고자 한 풍자이다.

『정평구 삽화 6』에서는 부러진 바늘을 통해 무용지물화(無用之物化)된 일상적 도구(日常的 道具)가 갖게 되는 안타까움을 설파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번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였지만 남자와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동네를 왜장치며 돌아다니기를, “부러진 바늘을 고친다.” 하자, 어린 촌 아낙네가 나와 바늘을 고쳐주기를 청하였다. 평구는 부러진 바늘을 보고서 말하기를, “그 바늘 머리를 가져오면 다시 이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낙네가 “없다.” 하자, “훗날 다시는 버리지 말라.” 하고서 떠나갔다.

이것은 바로 일상화된 삶에서 보여주는 무가치의 공허함이 무엇인가 반추하게 만든다. 여인네의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용하여 정평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결핍과 부족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여인네와 그를 이용한 바늘 고쳐 주기는 무용지용(無用之用)과 유용지무용(有用之無用)의 간극에 도사린 언어적 회화화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것의 쓰임은 곧 정평구의 언어적 회화화의 해학이고 유용한 것의 쓸모가 없음은 바로 속임을 당한 여인네의 허망함이다.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의 해학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쓸모가 있는 존재로서의 바람이 기회의 효용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렇더라도 쓸모 있는 존재로서의 바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욕구심리를 여지없이 흔들여 놓

는다. 그것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창조해내고 있는 처지라 하겠다.

『정평구 삽화 7』에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맹인(盲人)의 약점을 이용하였고 그에 따른 약속이행이야말로 양자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에피소드이다.

전주에 있을 적에 전주부 내에 수많은 봉사들이 술과 음식을 마련해 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들의 생일날이 되면 각기 돌아가면서 취하고 배불리 먹는다는 말을 들었다. 마침내 지팡이를 짚고 눈을 번뜩이며 어기적거리며 자리에 앉아 서로 성명을 통하고 평소애 아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질탕지게 먹었다. 평구는 헤어지면서 여러 봉사들과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모여 술 한잔하자고 약속하였다. 그 때가 되었으나 대접할 방법이 없었다. 몇 십 전을 가지고 소와 돼지의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구우니 냄새가 온 거리를 진동하였다. 봉사들은 사슴 떼처럼 몰려들어 코를 벌름거리며 비위가 동하였다. 평구는 기쁜 듯이 그릇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들을 위로하였다. 이는 미리 길거리에 버려진 깨진 그릇들을 모아 수없이 배열해 놓고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낸 것이었다. 평구는 그 가운데 힘고 성질깨나 있는 봉사를 살피 주먹으로 잡자기 그의 뺨을 치자, 그 봉사는 깜짝 놀라 일어나 성질내면서 흰 눈동자를 번뜩이며 핏발을 세우고서 지팡이를 들어 정신없이 휘두르며 성질내어 ‘이 어떤 나쁜 놈이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좌우에서 그가 휘두르는 지팡이에 맞아 서로 엉켜 그릇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봉사들은 모두 기분이 상해 일어남으로써 마침내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약속이행은 지극히 정당화된 약속이행이 아니라, 왜곡(歪曲), 호도(糊塗)된 비인간적인 약속이행이므로 무민적 성격(誣民的 性格)을 지닌 해프닝일 뿐이며, 그런 속에서 개인과 집단과의 대립양상이 개인주의적 가치 지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집단과 전체가 갖는 우매성과 확실성을 갖는 비극적 삶의 양태를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초점이 정평구의 기만행위의 기발함에 초점을 맞춘 에피소드라 하겠다. 기만행위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하나의 에피소드로 내재되어 있기에 ‘보임과 못 봄’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해학의 실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알고 보면 현명한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의 선명한 대비는 정평구와 봉사의 관계로 대치되었다 해도

과인이 아니다. 정평구가 봉사와의 관계에서 행한 반인륜적 행태는 재치와 기지로 주체화하기엔 무리가 뒤따른다. 단순히 정평구의 기만행위가 정당화되고 반인륜적 행태가 정당화된다면 봉사와 같은 약자와 과부, 홀아비 등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존엄성이 유린당하는 공간에서는 어떤 사회적 건강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사’와 ‘정평구’의 상징성이 문학의 본령이라면 봉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고, 정평구는 교활한 지도자로 환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봉사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백성을 기만하는 정평구는 제이 제삼의 인물로 언제든지 역사 속에 재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좇고, 감각적인 것만을 중시하다 보면 봉사들처럼 기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평구인 내가 당신들, 봉사들(어리석은 백성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 감각적인 본능에 집착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흑세무민은 비도덕적인 사회, 반인륜적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는 기만행위로 피치자를 위한 통치수단이자 지배자의 그릇된 통치술이기도 하다. 그런 행태가 자행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백성들의 ‘사이비(似而非)’에 대한 분별의식이 강화될 때, 흑세무민적 행태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정평구 인물전을 편찬한 서술자의 편찬의식과 그 의도는 단순한 소화담이나 트릭스터담이지만 그것을 기지와 재치가 있는 정평구로 각색해서 찬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이 민담이나 야담이 인물전에 습윤된 결과라고 보여지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평구 삽화 8』은 정평구의 기만행위(欺瞞行爲)가 극에 달한 장면인데 거기에 바로 정평구다운 거짓말과 실체가 고스란히 투사(透寫)되어 있다.

서울에서 한 달 동안 머문 뒤 돌아가려 하자 여관 주인이 비용을 요구하였다. “돈이 없으니 함께 동작전에 가면 빌려서 갚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인은 마치 못해 따라나섰다. 정작 그곳에 가서 말하기를, “그곳에 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차라리 죽음으로써 보상할 것이다.” 하고서 스스로 한강에 몸을 던지자 주인은 깜짝 놀라 도망하였다. 이에 몰래 다시 나와 고향으로 도망하였는데 한참 후 서울에 올라가 그 여관을 다시 들어가자, 주인이 자세

히 살펴 보다가 말하기를, “네 놈이 그 때 내 돈을 갠지 았고 물에 뛰어들었던 놈이 아니던가.” 하였다. 평구는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상투를 낚아채며 말하기를, “나에게 쌍둥이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지 았기에 내가 복수하러 왔다. 내가 바로 그놈이구나.” 하고서 그를 끌고서 법조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그가 실색하여 애걸하고 속급 얼마를 줄 것을 약속하면서 수없이 청하기에 못이기는 척하면서 주인의 말을 따랐다.

그야말로 정평구는 트릭스터의 귀재이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여관주인은 정평구의 기만 피해자이다. 그의 기만행위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기 위해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술수와 대단한 담력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의 약점을 매개로 해서 자기 행위의 정당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황과 사건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았다. 현실에선 여러 변수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여러 변수를 감안하고 직조해서 그에 따른 술수와 기만이 의도한 대로 빛을 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약점이나 단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았은 것이다. 문제 발생과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해소해야 하는 처지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았든 문제 발생이 우리 생활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정평구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 인물의 대응방식이나 성격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빌미를 찾고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그 가운데 정평구의 재치와 기지가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문제해결로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 큰 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역설적으로 설교한다. 그의 문제해결 과정은 어느 관점에서든 정당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자신의 욕구와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건 그것 자체가 사해행위(詐害行爲)가 아닌가. 정평구의 문제해결 방식은 공동체의 이익과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 더 이상의 의미도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편찬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인물로 정평구라는 인물이 입전대상이 되었을까를 헤아려보면 그 답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 유대 관계를 건전하게 확립해서 사회적 건강성을 고양하는 의식이나

정신으로 발전하리라는 의미지향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 추측된다. 단순히 재치와 기지를 발휘하는 발상의 전환이 정평구의 강점이라면 그것이 사회적 의미를 갖기 위해선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추구만을 강변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과 가치여야 그 존재적 의미지향이 긍정적으로 고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술자의 기술 목적이나 의도는 한 개인의 재치, 기지, 임기응변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 정평구라는 인물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평구라는 개성적인 인물의 일생을 서술하면서 그것을 입전자(立傳者)의 세계관(世界觀)에서 평가하는 문학과 역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교술 갈래의 문학양식¹⁸⁾이란 점을 전제해 보면, 문학 텍스트로서의 뿐만 아니라 전의 개성적 인물의 서술에 초점을 맞춘 듯한 서술양상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논고는 문학연구 방법에 따라서 찬술자의 의도를 중시하되 독자적 비평이나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다. 그래야 문학의 현상과 연행 현장, 주제적 의미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정평구 삽화 10』은 진나라 시황제 이후 호해와 환관 조고와 관련된 고사성어인 지록위마(指鹿爲馬)와 억지궤변과 흡사한 정평구의 기만행위가 궤변이지만 궤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가 정평구다운 기지와 반전이 동시에 갖춰져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내용을 보자.

한 번을 말을 끌고서 서울에 갔었는데 말을 키우기가 어려웠다. 때마다 수탉 파는 사람을 보니, 수탉이 크고 깃털이 아름다웠다. 닭을 안고 말하기를, “아, 봉황이여! 봉황이여! 내가 너를 처음 보았다.” 하면서 손을 놓지 않고 아주 사랑하였다. 봉황의 값이 얼마냐고 묻자, 그 사람은 거짓인지 참인지 의심하여 값을 말할 수 없다 하였다. “나에게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골똘히 깊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 말과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그 닭 장수는 일부러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닭을 주고 그 말을 받았다. 평구는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저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쌀 한줌을 구해서 닭에게 먹이를 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닭을 안고서 말이 있는 집에 찾아와 주인을 부르니 그가 나오자,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내, 멍청하기로서니 네는 도둑놈이다. 너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

18) 김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p. 103.

니 그 사람은 깜짝 놀라 말을 되돌려 주었다.

그야말로 기만과 교활과 탐욕과 역지가 텍스트의 전면에 나타나 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닭과 말은 모두 가금류이다. 그런 가금류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재화의 가치를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가금류라도 운송수단으로 활용되는 말을 도심 공간에서 제 일을 보려면 거추장스럽다고 닭과 맞바꾸는 행태는 그냥 간과하기엔 재치와 기지보다 부작용으로 나타날 혼란 초래가 소통의 부재를 가져올 것임이 틀림없다. 상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만행위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해를 위해 타인의 존재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정평구라는 인물 입장에서 보면 재치와 기지로 서울 일정을 아무 무리 없이 잘 소화했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그래도 정평구는 자기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기지와 재치라고 편찬자의 의도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평구의 품성이나 재질이 곧 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 그의 기만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도덕성의 부재를 드러내놓고 행위화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속임수를 현명한 것으로 여기며, 계략이 많은 것을 일 잘하는 것으로 여기는¹⁹⁾ 게 곧 파탄과 재앙,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만행위가 한 인간의 이기적 속셈을 충족시켜주고 일개인의 명철보신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곧 공공의 적이자 사회질서의 위해자(危害者)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재 등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은 선발과정이 법과 제도로써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법과 제도가 인치(人治)에 좌우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실책은 적지 않은 불행은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평구 삽화 11』은 대국과 소국의 관계에서 소국의 비하(卑下)나 냉대(冷待)는 금물이라는 의미를 통해 개인과 개인이라든지 국가와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야말로 대등한 관계와 신뢰가 인간사회의 도리임을 주제로 표방하여 보여준다.

19) 유향 저, 임동석 역, 『신서』, 예문서원, 1999, p. 70
趙文子問於叔向曰(中略)以欺爲明, 以刻爲忠, 以計多爲善(下略)

계사년에 진주 난리에 그의 친구가 포위당하자 계략을 써서 넘어 들어가 그와 함께 탈출하였으며, 그 후 청병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을 적에 샷갓을 쓰고 모래 위에 앉아 팔진도를 배열하였는데, 그 우두머리가 말하길, “아무리 작은 국가이기로 인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자, 용장이 말하기를, “일찍이 중국에 폐하와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샷갓은 천한 자의 관입니다. 이 나라의 풍습에는 천한 사람을 벼슬에 쓰지 않으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였다.

평구가 광주리를 하나를 짊어지고 청나라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오줌을 누면서 욱지거리를 하자, 청나라 사람들이 뒤쫓아 왔다. 이에 광주리를 벗어놓고 달아나니 그 광주릴 여는 순간 벌들이 나와 청병들을 쏘아댔다. 또 다시 광주리를 짊어지고서 지난날처럼 욱을 하다가 내버려 두고 달아나자 벌이 들었을까 의심하여 불태우니, 그 속에 있던 화약이 터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평구가 일찍이 말하기를, “만일 나를 등용하여 준다면 사흘 만에 청나라 병사들을 말끔히 쓸어버릴 수 있다.” 하였다.

비록 땅덩이는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인재는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알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비록 초라하고 허름한 옷차림의 갑남을녀(甲男乙女)이고 장삼이사(張三李四)에 불과하지만 그의 내면의 문화의식과 재략(才略)과 모략(謀略)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민중적 사고의 현현(顯現)이리라 믿어진다. 게다가 알잡아 볼 수밖에 없는 남루한 차림의 정평구는 지략이 뛰어난 영웅적(英雄的)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또한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정평구는 신분상 명문거족이 아니며, 미천한 신분계층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현실 세계에서 당장 수용되지 못하는 당시의 인재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는 동시에 용인지술(用人之術)의 폐단과 실패를 적시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는 아주 미천한 신분이거나 미천하지 않더라도 현달하지 못하고 불우했던 인물, 혹은 역사 현장에서 권력자의 희생물이 되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인물로서 천한 자들의 능력과 좌절²⁰⁾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청군에게 욱을 하고 광주리를 놓고 달아나자 그만 청군들이 벌떼

20)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임진왜란 설화를 중심으로-, 집문당, 1989, p. 53.

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만다. 옳거니 됐다 싶어 이번에도 별떼이리라 싶어 불을 질러버렸더니 화약이 터져 몰사(沒死)하고 만다. 그의 지혜와 지략을 통해 구한말의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청나라의 역할과 내정간섭이 극에 달해 있던 터에 그의 행동양상은 민족적 의식의 고취라는 민중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식의 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민중의식은 대국인 청나라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난 우월의식과 자주의식과 상통한다.

정평구 삽화들이 한결같이 기만과 지략의 행위요소들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술자의 인물평에 있어서도 ‘권모(權謀)’와 ‘임기응변(臨機應變)’에 뛰어난 정평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재의 등용이라는 국가 정책의 부재와 그 모순이 민족의 장래를 암울하게 할 뿐이라고 못 박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술자의 입장과 관점,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귀천의 고하에 따라 민간에 숨어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게을리 한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헤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주변 열강의 힘의 논리가 나라의 존망마저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해방공간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추측된다.

인물전의 서사구성 방식에 따른 논찬부는 편찬자의 서술시각과 그 의식이 강렬하게 투영되는 부분이자 단락이다. 이제까지 본문에서 서사화되었던 모든 에피소드는 궁극적으로 논찬부의 중심 언어를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사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편찬자의 서술시각을 보면 ‘왜?’라는 주제 의식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내놓고 만다.

인정기술한 목적이 인재등용의 폐단과 관련해서 정평구라는 인물을 눈여겨 보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평구라는 인물이 입전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곧 국가 정책의 부재와 부정과 부패, 인치의 폐단을 보여준다. 논찬부에 거명된 중국 은나라 주나라 시대인물인 ‘부열’·‘태공’이란 인물의 입지전적 인물 발탁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었다라는 점에서 정평구라는 인물에게도 그들과 같은 면모가 일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탐관오리나 무능한 정부는 민간에 숨어 있는 발군의 재능을 지닌 인물들을 발굴해서 활용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외면한 채 권력 쟁투에 문벌 쟁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매한가지다.

4. 〈정평구전〉의 미학적 특징

정평구의 행위 양상들이 한결같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되어 있으면서 독자에게 거부감없이 다가와 있는 근거에는 지극히 도덕률에 입각한 삶의 표상들이기 보다 인간 중심적 일탈행위의 풍자나 골계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학과 풍자 이면에는 편찬자의 입전(立傳) 대상으로서의 정평구를 국가의 등용정책과 연결시켜 고려하게 함으로써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상의 적격자, 적임자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난세를 헤쳐나가는 지혜로움이라는 서술자의 편찬의식이 작품에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학과 골계가 정평구전송의 주된 미학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인물 삽화들이 전승되고 있는 김제 지역의 민중들의 어떤 의식과 관계되어 있음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로 그 어떤 의식이란 개념이 굳이 말하자면 민중의식의 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당대적 삶의 표상과 가치의식이 어떻게 투영되어지는가 탐색해 보면 사회적 제도나 규범의 이완기 내지는 세기 말적 불안의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과 규약들이 지극히 이완되고 느슨해진 시기에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의식을 반영하여 향유되어졌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정평구 버전의 해학과 풍자와 골계의 미학을 규정하는 일이 다른 풍자와 해학을 띤 작품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 까라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설화와의 변별성(辨別性)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명한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명철보신(明哲保身)을 위한 임기응변(臨機應變)이 자유자재로 구가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장받는 점이 자기중심적 가치의 현명한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재치와 재능을 지닌 정평구라는 인물을 지배자의 의지로 중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배가시키자는 서술자의 인식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배자의 의지만 있으면 민간에 얼마든지 많은 인재를 발굴하여 활용하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벽지 시골이나 하찮은 객점에서 뒹굴던 사람들이 청사를 빛내고 공을 세울 수 있는데²¹⁾ 그 장본인이 곧

정평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재란 지배자의 쓰러는 의지만 있으면 넘쳐나게 마련이라는 논리가 이면에 깔려 있기도 하다. 그런데 왜 지혜와 모략이 빼어난 정평구라는 인물이 등용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관료 세계의 폐쇄와 경직성, 부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한말의 부패와 모순과 일제강점기의 국권상실과 민족 정체성이 유린당하는 현실 모순, 해방 공간이라는 격변기의 혼란한 사회상에서 국가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혼란과 부패와 국권상실의 격변기, 그 속을 관통해온 편찬자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이 김제지역에 구비전승되어온 정평구라는 인물과 결부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부정부패의 정도가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 부패의 뿌리가 깊으면 인재를 등용할 수 없다는 홍매²²⁾의 논리가 의미심장하게 비쳐진다.

한편으로 그의 기만행위가 강자와 약자의 긴장 관계 속에서 약자의 지혜로움이 강자의 힘과 논리를 반박하거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정평구 인물전의 해학과 풍자에 따른 주제적 특질로 보여진다. 약자와 강자의 관계는 일방적이며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대립과 갈등의 상호모순적이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약자의 논리가 통용되어지기란 그리 쉽지 않다. 약자의 강자와의 대결은 약자의 지혜나 재치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자의 지략과 재치가 그 힘을 발휘할 때 이야기로서 그의 인물됨과 성격을 규정한다. 바꿔 말하면 외면적 강자에 이면의 어리석음과 소심함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타의 단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을 때, 약자의 논리와 궤변이 소통되면서 그 이야기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하에 약자의 처세술이란 속음과 속임의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기주의 밖에 살 길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한다. 정평구의 대립적 관점에 놓인 인물군, 즉 반동적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대립적이고 갈등적 인물군상들이 여관 주인, 밀도

21) 홍매 저, 임국웅 역, 『경세지략』, 지식의 숲, 2010, p. 28.

22) 홍매 저, 위의 책, p. 222.

살을 수색하는 관리, 인색한 담배 장사, 우롱당하는 아전, 정평구를 얹잡아본 청군 등이 후자 계열에 속하는 인물들이라 하겠다. 반대로 자아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명철보신(明哲保身)의 현명한 이기주의를 형상화한 인물군상들은 거짓말 잘하는 정평구, 정평구에게 기만당한 수탈 장사, 바늘 고쳐보려는 아낙, 정평구에게 당한 봉사 등이 전자에 속하는 인물군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평구 인물전의 전승 미학은 해학과 골계로 형상화된 가운데 명철보신(明哲保身)과 현명한 이기주의로 성격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대적 이데올로기에 비취 볼 때 유교적 실천 덕목과도 관계가 있는 가족, 혈연 중심의 문화 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싶을 따름이다.

5. 결론

본고는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이 지은 『유재집(裕齋集)』 권지육(卷之六) 소재 <정평구전>을 텍스트로 삼아 유형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행 현장의 실제와 전과 야담과의 상호 교섭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인물전승의 구조적 의미와 미학적 특질을 고찰하였다.

정평구 인물전승은 무엇보다 조선 후기 인물전의 전형과 형식을 그대로 온존시킨 상태에서 사건이 중심 되는 내용적 전개 위에 사실과 허구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문헌에 정착된 텍스트이다. 그러기에 전의 구성양식에 있어 행적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야담, 설화, 사실, 역사가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평구 인물전승은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적 변이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개방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따라서 전의 특성상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본고의 설화적 모티프를 매개로 한 정평구 인물전승은 역사적 시차로 구비전승 되는 과정에서 내용적 변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두루 갖춘 작품이다. 그리고 편찬자의 서술 태도와 시각이 작품 논찬부 전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편찬자는 가담하여 야담을 침착과 변개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조선후기 근본적인 인재등용 정책의 문제점이나 적재적소의 인재등용의 모순점을 직, 간접적으로 비판하

고 있다. 게다가 정평구 인물전승은 문예미학의 특질인 재치, 기지와 풍자, 해학이 사건 전개에 극적 반전으로 작용하여 흥미를 더하여 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 민중의식의 발로가 구현된 적층문화적 특성을 실재적 인물전승에 덧붙여서 민중들의 역동성과 생기발랄함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평구 인물전은 김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구비전승되어 오다 유재 송기면의 편찬의도에 따라 재구성된 전 문학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문집류(文集類)에 찬술된 작품은 편찬자의 역사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자가 살던 그 시대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라는 혼란스럽고 유교적 가치관이 서구문화 유입으로 더한층 동요를 일으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고비인 서세동점(西勢東漸)하는 상황에서 주변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의 현실적 모순 속에서의 구국의 일념, 해방 공간 이후의 혼란한 사회상의 애국적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이 편찬자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이 뚜렷한 유재 송기면이다. 그가 겪고 있는 세상사는 가치관의 부재, 올바른 시대정신의 부재로 아노미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평구라는 인물전승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인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시대적 혼란 양상이 끝도 없이 펼쳐질 예측불허의 상황 모순이다. 이런 판국에 사이비 애국자만 판을 치는 시류를 꼬집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평구 같은 인물들이 과감히 나라에 등용되어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등용정책의 폐단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서술자의 역사의식과 의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평구의 인물전승의 의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선 당대적 의식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촌 마을의 삶의 발달함, 순박함과 세태 풍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을 그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다. 보통 거짓말쟁이는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가지 않는 인물, 어느 한 집단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인물 정도이지만 그것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의식도 불신사회의 메타언어일 수밖에 없다. 차라리 거짓말에 관계된 설화는 개인보다 힘센 집단이나 자기보다 유력한 자들에 대한 풍자나 골려주기이거나 지배계층이나 절대 권력층에 대한 풍자가 서슴지 않고 진행된 야담류(野談類)에 널리 전승되고 있다 하겠다. 일반 민중들의 삶과 그 의식 속에는 지배계층이나 어느 면에 있어서 유력

한 자에 대한 질타와 풍자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정평구라는 인물전승에 있어서도 거짓말에 대한 제재를 이용하여 절대 권력이나 지배 계층이나 탐관오리 등을 여지없이 골려주는 사건들이 일부 발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평구의 인물전승의 실체는 지극히 소박한 농촌적 삶의 굴곡에 투영된 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며, 때로는 참말 같은 거짓말이나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현실에 대한 여유와 존재적 가치의 회구를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 당대적 의식을 포괄하고 있는 인물전승의 삽화로써 소시민적 삶의 양태가 고스란히 배어있기도 하다. 당대적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골계와 해학의 진수를 정평구 인물전승에서 얼마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며, 실제 이들의 삽화가 인물전승에 덧붙여져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연행되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개 사건의 연속성을 지닌다기보다 골계와 해학이라는 모음집에 정평구에 대한 재치와 연행성이 상호 부합되면서 액자구성의 에피소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지던 인물전이 편찬자에 의해 기술되어지면서 무엇보다 당대의 가치관, 이념 등이 서술적 시각에 의해 어떻게 초점화되어 기술되어지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편찬자의 서술 시각에 인물과 사건은 적극적으로 당대적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서 후세에 교훈을 남길 목적으로 기술되어진 인물의 행적은 단순히 그의 성장 배경과 업적과 죽음에 이르는 서사성을 피력하면서 세태의 보편성을 획득하며 향유되어지곤 한다. 그러기에 그러한 서사적 기술은 삶의 세계의 진실이 어떻게 표상되어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까지 두루 제기하면서 연행되어진다. 물론 그러한 문제 제기가 주제의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해도 주인공의 삶의 표상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실제적 효용성은 일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지향한다.

본고에서는 유재 송기면의 문집에 소재한 <정평구전>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유재의 사상과 철학이 중흥으로 교직된 한시와 다른 산문들과 관련하여, 시대상의 반영이나 세태 풍자 등 전술한 바와 같이 인물 평전을 통해 드러내 고자 했던 인재 등용의 문제점이나 폐단과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작품에까지 융심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평구전>에 담긴 편찬자의 서술시각

을 고려해 볼 때, 한시를 비롯하여 『유재집』에 수록된 여타 문학 작품과의 총체적인 비교 고찰은 별고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병학, 『온고이지신의 고향 김제』, 학예사, 2007.
- 김순동 편, 『한국고사대전』, 회상사, 1969.
- 김승호, -이안중의 산문에 나타난 소설화 경향-, 『어문연구』 148호,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2010.
- 김 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 송기면 저, 박완식 역, 『유재집』, 이회문화사, 2000.
-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 유 소, 이승환 역, 『인물지』, 홍익출판사, 1999.
- 유 향, 임동석 역, 『신서』, 예문서원, 1999.
- 이동근, 『조선 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 1, 평민사, 1990.
- 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임진왜란 설화를 중심으로-, 집문당,
1989.
- 정명기, 『야담문학 연구 현단계 1』, 보고사, 2001,
_____, 『한국야담연구』, 보고사, 1996.
- 홍 매, 임국웅 역, 『경세지략』, 지식의 숲, 2010.

〈Abstrac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s of 〈Chonpyongku geon〉

Kim myungsun

This manuscript was looked over the aspects of mutual negotiation between the practice of hauled scene and the story of the criminal records to grasp the typical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 making 'Yu Jae Jyp by Yu Jae, Ki Myon Song and 'Jeong Pyeong Gu Jeon made of 'Kwon Ji Yuk the text. And we considered carefully the structural meaning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More than all, the personal transmission of Jeong Pyong-gu is the text established in the literature interacting the structure of substantial development tha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event adequately with facts and fictions in the state preserved models and the forms of personal collection intactly in the late Jo Son Dynasty.

Therefore in the component form of the collection as the part of whereabouts of the text, we could understand that the common substantial change was taking place while historical tales, fables and factual histories were interacting.

Consequently, due to open nature of the 'Jeon(전)', by the legendary motif of this manuscript, the personal transmission of Jeong Pyong Gu is the work with various conditions that can cause the substantial change

easily in the course handed down orally by the historical time difference.

And the attitude of narration and the point of view of the compiler remain intact in the commentary part of the text. But now and then there is indirect periphrastic criticism about the problem of selection of fit persons of ‘Gadamhangeo(가담향어)’ in the late Jo Son Dynasty. Furthermore since the transmission of character adds interest while literary aesthetic character-wit, satire and humor-are operating as the dramatic reversal of development of the event, we can learn that it is a personal collection that laminated literary feature realized the expression of popular consciousness in the late Jo Son Dynasty permeated intactly in the practical personal transmission.

Keywords : Jeong Pyong Gu, Collection, Historical tale, Each Volume, Narrative Point of View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